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오로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同志의 한평생의 혁신과 눈물겹게 안겨오는 화폭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주체 83(1994)년 7월의 그 나날 어둔을 넘긴 고령에도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제발전 전망과 인민생활향상문제를 의논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현신의 로고가 비껴있는 사진이다.

가만히 귀기울이면 한몸의 퍼로를 무릅쓰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밝혀주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열정적으로 순세를 써가시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또 지도우에 친히 경제발전의 화살표를 그어가시던 그날의 수령님모습 뜨겁게 되새겨지는 이 화폭에 위대한 현신의 한생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사의 갈피에도 수령님처럼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애민현신의 혁신을 새긴 그런 정치가, 령도자는 없었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위대한 장군님대에 거창한 현실로 열매를 맺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밑에 강성부흥의 전성기로 펼쳐지는 오늘 그이께서는 민족의 어버이로 영생하고 계시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으로 작《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날이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 들어선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가치높이 만난을 뚫고 승리해온 전력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아켜 보고있다.

시대의 등불파도 같은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세상만방에 떨쳐왔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30년간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懈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나날이었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조국의 강성부흥과 민족의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폐부로 절감한 날이었다.

민족의 지도리념인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창조와 건설의 전로정에

빛나게 구현하신 장군님의 타월한 령도에 의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주체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얹혀같이 뿐리내렸고 우리 조국은 혁신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승리와 혁명의 년대기를 수놓으며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었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고립 압살책 동이 국도에 달했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 자기 운명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보검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압도 주체사상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와 인민을 굳복시킬수 없었다.

공화국은 주체의 가치밀하는 공화국의 위력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높이 발휘될 것이다.

주체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장원기

신식문명에 기대를 염고 상하이의 동체대학에서 학문을 닦고 도이췰란드 베를린종합대학,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을 고학하기도 하며 나라의 독립을 갈망했던 리국로였다.

1929년 1월 귀국한 그는 서울중동학교에서 조선어학자협회를 끝고 민족어를 고수하기 위한 의료운동 활동을 벌렸다. 양심적인 어학자들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대해 같은 믿음과 끊임으로 진정한 애국, 애족, 애민의 길을 걸도록 내세워주시고 보살펴주신 사람들을 기우에는 오랜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리국로선생도 있다.

리국로선생은 순결한 민족적량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지난 세기 17살 나던 때

에 망국민의 불행을 겪게 되면서 배움의 푸른 꿈은 즐거움에 무너지게 되었다.

식민지민족의 의분을 누를길 없었던 그는 문화계동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 청운이 이진 김일성장군님께서 암흑을 불사르는 광휘로운 태양의 모습으로 가슴깊이 간직되었다.

그나마 리국로선생에게는 복두산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는 민족적영웅이 되었다. 수령님의 제의에 따라 리국로선생은 회의 주석단성원으로 되었고 만장일치의 호응을 받은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격함》을 랑독하는 자리에도 올랐다.

1937년 6월에 있은 보천보전투를 사변으로 그는 전설적위인에 대한 숭배심

히 격파분쇄할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갖추고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도, CNC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고 주체체,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등 다계단사변들을 련이어 일으키게 된 것도 주체사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는 조국의 벽찬현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고귀한 결실인 것이다.

에짚트신문 《알마씨야》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극단적인 제재와 봉쇄,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소생이 불가능하다면 조선의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강국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의 근본비결은 경제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압도 주체사상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와 인민을 굳복시킬수 없었다.

공화국은 주체의 가치밀하는 공화국의 위력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높이 발휘될 것이다.

주체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장원기

을 암고 반일독립운동을 더파감히 벌렸다.

1942년 《어학회사건》으로 함흥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도 조선독립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았고 8.15후 남조선의 복잡다단한 정국속에서도 영명한 김일성장군님의 정처를 신봉하면서 조선어학회를 다시 살리는 등 온총에 의한것이었다.

민족어를 연구하고 발전시

켜도 어떤 자세와 힘장에서

창건되던 무렵에는 무임소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적량심과 국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국내외에서 민족여발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병대에도 관여하였던 인사라고 하시며 그를 굳게 믿고 뜻과 정을 나누신 수령님의 두터운 은총에 의한것이었다.

민족어를 연구하고 발전시

켜도 어떤 자세와 힘장에서

한다시며 그에게 보장하도록

하셨고 해마다 좋은 계절이

면 일이 바쁘더라도 휴양은 꼭 해야한다고 하시며 그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정

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두

터운 배려와 보살핌속에 리

국로선생은 로당의 장하여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

로 일하면서 나라의 번

영파 민족의 통일을 위한 애국성업에 있는 힘

을 다바쳤다.

그는 1978년 9월 여든

다섯살을 일기로 세상

을 떠났다.

전차만별의 민족성원 모두

민족이라는 하나의 대하

에 둘어세우시고 힘있는 사

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

람은 돈으로, 국에 애족에 살

도록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고마

한 덕망과 손길아래 리국로

선생은 애국의 한길을 보람

있게 걸었고 오늘도 민족의

추억속에 영생의 삶을 누리

고있다.

본사기자 리설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태양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여

지난 세기 나라가 분열된 첫 날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로 이루어졌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근 반세기동안 오로지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의 온넋을 다 바치시였다. 그 날 조국통일3대 현장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민족을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이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 현장이라고 지적하였다.

온 겨레를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이라는 애국의 리념밑에 굳게 풍치개 하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 조국통일3대 현장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반도에서 영구분열의 위험을 막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원칙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6일 남조선의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의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시여

여 북남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그 이듬해인 주체 61(1972)년 5월 3일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북남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리고 고위급대표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수 있게 된 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고. 자신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 원칙은 명인종의 명언으로서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모두다 환영 할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 강령이였다.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년대에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여 통일조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 무렵으로 말하면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이 《민족이 절화》 론과 《통일불가능》 설을 운운하여 반공화국대결과 분열영구화책으로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주체 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법을 밝힌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밀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체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방은 고려민주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통일국가의 성격과 국호, 그 대외적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상과 정권,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넘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은 주체 61(1993)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제택 발표되었다. 수령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의 창립을 통해 종목표로 제기하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단결의 리념적기초로, 공존, 공생, 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단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의 창립을 통해 종목표로 제기하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단결의 리념적기초로, 공존, 공생, 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단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법통일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한없이 송고한 민족애를 지니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그 미소 태양처럼 찬란하다

노래를 함께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장군님.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불변의 조국수호의지를 지니시고 민족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천만고생을 다 겪으시며 선군천만리를 헤치신 장군님이시다. 이 나라 북변으로부터 남단의 한풀까지 인민이 있는 그 어디에나 그의 운명과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펼쳐져 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을 가르는 시금석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해야 한다.

현시기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릴장과 태도는 북파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북파 남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것을 확약한 북남공동선언들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단합의 선언이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

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지 결코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파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잊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그러므로 북파 남의 화합과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민족자주와 대단결만이 민족이 살고 통일로 가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는 북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

모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이 다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를 부정하고 방해하는자는 매국노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무슨 『원칙고수』와 『유연성』을 떠들면서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를 대역죄로도 모자라 또다시 외세와 약한 북침전쟁 연습소동을 벌려놓고 동족의 아픈 가슴에 충부리를 내고 있다.

현실은 북파 남의 화합과 통일의 악랄한 파괴자,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자주통일의 기치 따라 전진하는 6.15시대에 북남공동

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를 부정하고 방해하는자는 매국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의 존, 민족단합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면 차례로는 오직 과멸뿐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루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은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합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철저히 넘원하는 민족적 위업이다. 여기에 정치적 합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희망이란 다른아닌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 때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는 정치적 합이다.

이러한 조직적 합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사업은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로 묶어 세워 반통일세력에 비한 통일에 국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에 국세력의 협력을 말한다.

이다.

내외 반통일호전세력은 통일에 국세력의 단결을 각방으로 방해해 나서며 우리 민족의 거족적 통일 진군을 멈춰세워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은 통일을 바라는 철대다수의 광범한 민족성원들이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안팎의 분별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는 정치적 합이다.

김종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만경대와 백두산 밀영 방문, 여러 곳 참관

파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 물

만경대 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부의장은 28일 백두산 밀영을 방문하였다.

그는 밀영에 진립된 백두산 3대 장군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꽂다발을 치우면서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정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역사의 고향집을 찾은 그는 백두의 기상과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빨찌 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이에 앞서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은 부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 달 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그는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그는 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으며 사령부 귀를 걸음을 돌아보았다.

부의장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약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하면서 그이와 같은 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녘겨레의 마음을 안고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그는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에 앞서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은 부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 달

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그는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백두산 밀영을 방문하고 삼지연대기념비를 참관하였다.

자주통일기운을 고조시키기 위한 장거를 높이 평가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장

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애국민중들은 그의 장거를 높이 평가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부의장이 북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것은 민족의 영도자를 잊고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는 북의 형제들에게 동포애적인 위로를 전

하고 자주통일기운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즈음하여 남측의 양심인들은 정견과 소속을 초월하여 조문단을 북에 파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하면서 성명은 당국이 부의장을 탄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보수세력의 고질적 악습인 『색갈론』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또 도지고 있다.

『새누리당』 폐거리들 속

에서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울려나오는 속

에 지난 27일 박근혜는 애당을 향해 『월 지난 리념비를 찾은 부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 달

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그는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성명은 민족의 자주통일 실현을 사명으로 지닌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통일성전에 떨쳐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힘을 합쳐 전쟁과 대결을 막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자고 성명은 호소하였다.

『새누리당』 폐거리들이 『선거』를 앞두고 『색갈론』과 『변화』를 부르짖다 못해 낚아빠진 상투적 수법인 『색갈론』과 『북풍』 소동에 또 다시 매달리고 있는 것은 궁지에 빠진 그들의 처지

불과하다.

지난 시기 로태우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란 것을 통하여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거부하였고 김영삼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전

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주요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애전대를 구성하고 단일후보를 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한다는 『정권심판론』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끌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자들의 『색갈론』 공세

남조선보수세력의 고질적 악습인 『색갈론』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또 도지고 있다.

『새누리당』 폐거리들 속에서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울려나오는 속에 지난 27일 박근혜는 애당을 향해 『월 지난 리념비를 찾은 부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 달

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그는 장군님께서는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새누리당』 폐거리들이 『선거』를 앞두고 『색갈론』과 『변화』를 부르짖다 못해 낚아빠진 상투적 수법인 『색갈론』과 『북풍』 소동에 또 다시 매달리고 있는 것은 궁지에 빠진 그들의 처지

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지난 27일 박근혜는 애전대를 구성하고 단일후보를 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한다는 『정권심판론』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끌리고 있다.

그리기 때문에 민족성원이면 그가 북에 살진 남에 살진 해외에 살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염중히 고려하는 사람의 무리를 반대하는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장이 철 지난 『색갈론』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총선』을 흙탕물 죽음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파거 수십년간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을 리용해 『색갈론』을 제기해 왔지만 여기에 속을 사람은 더는 없다.』고 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0년에 진행된 『6.2지방 선거』와 지난해 『10.26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여실히 중명된 것처럼 국우보수세력의 캐비닛은 『색갈론』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더는 통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폐거리들은 말도 되지 않는 『색갈론』, 『북풍』과 같은 허위기만과 동족대결책 등에 매달릴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폐거리들은 말도 되지 않는 『색갈론』, 『북풍』과 같은 허위기만과 동족대결책 등에 매달릴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여러 애당들은 한결같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

본사기자 김철민

남조선보수당국의 『체제통일』론을 해부함

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만들고 『통일』 후 국가의 리념이나 형태는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할것』이라는 『민족통일방안』이니 뭐니 한 남조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통합보당의 공동대표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경기동부 협약』의 조종을 받고 있다느니 뭐니 하다 못해 『이민 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는 통합보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

적 합의와 찬동도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보수정권은 『원칙있는 대북정책』이니, 『유연성』이니 『기다리는 전략』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을 시도해 보려고 어리석게 펴고 있다. 그들은 대내외 정책의 종파산으로 궁지에 빠지게 되자 사기와 협박, 문으로 살져온 보수언론들을 총발로 통합하여 공화국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의 세로운 전성기를 펼치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에 만방에 떨쳐내고 있다.

정도자와 군인이 말을 끼고 어제를 고집하고 어제의 동포도 없이 전진해나가는 북의 모습에서 세계는 원자란으로써 깨뜨릴 수 없는 불매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유독 리명박의 적무리들만이 『북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북·미 관계에 『비상경제』를 향해』는 군부내에 『비상경제』를 내리고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불행행위들을 꺼리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내외 각계가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쓰레기』,

『인륜도덕도 모르는 폐를 아끼고 『인류대전』이라고 역적무리를 저주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보면 남조선의 보수세력

성은 객관적 사실이나 판계에 대한 학제적 분석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위성통신들과 TV, 신문, 방송들은 북의 애전대를 일제히 앞을 다투어 전하면서 『북의 일심단결은 평

